

# 순천대 로봇과학교육센터, '대학진로탐색캠프' 성료

###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학생 대상, 컴퓨터 관련 진로 탐색 활동

### 직접 실습 제품 만들고, 멘토링 통해 과학·컴퓨터 관련 진로 체험

순천대학교 로봇과학교육센터는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2022년 대학진로탐색캠프'를 통해 최근 참여 기관인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진로 탐색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은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 체험활동 및 캠프, 상담 및 생활지도,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학진로탐색캠프는 ▲3D프린터 원

리와 사용법 ▲블록코딩 및 텍스트 코딩 체험을 바탕으로 중학생 26명이 직접 실습 제품을 만들어보고 멘토링을 통해 과학 및 컴퓨터 관련 진로를 체험하도록 꾸려졌다.

캠퍼스를 방문한 중학생 멘티들은 컴퓨터 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순천대 사범대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3D프린터로 도장 만들기', '스크래치를 활용한 머신러닝'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활동 후 멘토들과 조를 만들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

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관련 대학교 전공과 입시에 필요한 사전지식을 알아보는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로봇과학교육센터 이형욱(컴퓨터교육과 교수) 센터장은 "교육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했다.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학진로탐색캠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 로봇과학교육센터는 올해 10월까지 전남 지역의 7개 중·고등 학생들에게

SW코딩, 수학, 화학, 3D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선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나누는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교육청-녹동고등학교, 청렴 UCC 제작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행정실장 및 주무관이 주축이 된 교육청청렴동아리 '청정원'과 녹동고등학교 영화동아리 '간'이 함께 도화면 발포만호성 일대에서 협업으로 청렴 UCC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UCC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이순신 장군의 오동나무 일화인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란 주제로 학생·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제작에 참여하였다.

청렴 UCC는 청렴동아리 회원들이 이순신 장군의 청렴을 본받기 위해 발포만호성을 찾아 전라좌수사 성박의 명을 따르지 않고 소신으로 나라의 재산(오동나무)을 지켰다는 교훈



을 배우고 청렴한 고흥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렴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퍼포먼스를 담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무안교육청 Wee센터, 2학기 상담주간 행사

###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마음토닥'·아침 등교 맞이 행사 운영

무안교육지원청 Wee센터는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 상담주간 행사인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토닥' 과 아침 등교 맞이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기 힘든 Wee클래스 미설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이심리검사', '우정사진관', '감정 활동지', '마음돌봄

키트'를 제공하는 부스 운영을 통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학기 초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찾아가는 상담실에 참여했던 김00은 "마음 토닥 행사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해봐서 좋았고 마음이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 김선지 교육장은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도움을 받아 정서적인 어려움을 없애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해남서초, 푸른 하늘의 날 계기 교육 행사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채택된 최초의 UN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해남서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해남서초등학교(교장 박향이)는 지난 7일부터 한 달 여간 전교생이 참여하는 푸른 하늘의

### 릴레이 독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날 계기 교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시민으로서의 참여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등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전교생 릴레이 읽기'를 통해 미세먼지의 나쁜 점을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비눗방울과 함께하는 푸른 하늘 사진전을 통해 우리의 푸른 하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신안 암태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부모 초청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하는 학부모 행사를 지양하고, 사전 조사된 수업 참관 희망 학부모 대상에 한하여 공개수업 행사를 진행하였다. 수확기가 다가오는 바쁜 기간임에도 이십여 명에 가까운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여 학교교육에 대

한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공개수업은 3, 4교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수업을 다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3교시에는 유치원, 1, 2학년, 교당(과학, 4학년 대상), 보건(6학년 대상) 수업이 공개되었고, 4교시에는 3~6학년의 수업이 공개되었다.

또한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 학부모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각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이후 시간에는 대면 상담 또는 사전 조사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다.

암태초등학교는 이번 학부모 초청의 날을 기점으로 다양한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제주도 체험학습(3~6학년), 전남·광주권 체험학습(1~2학년), 계절체험학습(스키캠프)과 학

부모 수요를 고려한 부모교육 및 시대적 교육 이슈에 부합한 다양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암태초등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더욱 정진할 것이다.

암태초등학교 이옥현 교장은 "우리 학교는 '배려하고 도전하며 꿈을 키우자'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탄탄한 기초학력과 뇌를 깨우는 아침운동으로 지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암태인이 되도록 힘쓰고 있고, 체험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다방면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늘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성원 모두가 지쳐 있는 이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꿈을 키우는 도전을 즐기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가 되고자 부단히 힘쓸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